

월간

충현

4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위 영 환
주 간 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 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5년 4월 20일 발행
통권 제16호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충현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부활절을 기하여 시작한 것은 대단히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우기 젊은이들을 키우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이번 특별집회(매주 일 오후 3시부터)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려면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특별집회가 하나의 운동으로 그 성격을 전환시켜야 한다. 카타르시스(katharsis)를 위한 것만으로 끝나 버린다면 「충현」을 위해서는 물론 한국의 보수교단을 위하여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를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는 말씀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는 기도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기도 없이 회개가 없고, 회개 없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니스웨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운동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하며 통회하던 초대교회의 회개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는 이 특별집회가 명실 공히 대학부와

청년부가 주최하는 「운동」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반 집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이 순서를 맡는 것」이라는 피상적인 대답만으로는 이 집회가 4부 집회는 될지 몰라도 젊은이들이 것처럼 기대해 오던 「예수 혁명」은 아니며 「동남아의 안디옥 교회」 또는 「민족 복음화의 센터」를 전제로 하는 집회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집회가 「운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려면 집회의 내용과 성격을 재래식 스타일이나 또는 왁자지껄하다 끝나면 다시 냉랭해지는 카타르시스적 집회만으로는 피곤만 더해질 뿐이므로 위에서 지적한 세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그리하여 「말씀의 운동」 「기도의 운동」 「청년운동」과 같은 「운동」의 참 뜻이 이루어질 때, 몇사람 중심의 집회가 아닌 범교회적 그리고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74년도에 있었던 엑스폴로 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충분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실패가 주는 교훈은 「많이 모이는 것 보다는 운동(movement)이 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는 자이다. 따라서 충현은 제2의 엑스폴로 집회가 되지 않도록 이 집회를 하나의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 때에 성령의 계절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주간>



차 례

〈설교〉 김종택 목사	3
〈기관소개〉 교육위원회	4
〈안내〉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5
특 ◇충현 「권사회」 출범하다	6
집 ◇꼭 필요한 「충현」지	8
〈구역공과〉 5월공과	11
〈해외선교〉 이종영 목사	12
〈결집〉 심는 일과 키우는 일/정은표	13
〈만평〉 오웅기	13
〈교회 뉴스〉	14

4월의 행사

2일/정기당회
6일/정기제직회
6일/양성부 7기 수료식
13일/권사회 창립총회
13일/남전도회 월례회
20일/교육위원회 월례회
20일/여전도회 월례회
27일/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
27일/구역권찬회 월례회
27일/특별집회 협의회 월례회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기독교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신령한 파종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10절〉



〈김 종택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또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농부들은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내다보며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씨는 신령한 영적인 씨입니다.

□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합니까?

①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부들이 씨를 심을 때 아무것이나 함부로 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씨에도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육체로 심는 자와 성령으로 심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육체의 씨(갈 5:19-21)—음행·더러운 것·호색·우상숭배·술수·원수 맺는 것·분쟁·시기·분냄·당짓는 것·분리·이단·투기·술취함·방탕·등 15종이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내버려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심는다면 후에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씨(갈 5:22-23)—이것은 좋은 씨인데 9가지가 있습니다. 즉 사랑·희락·화평·인내·자비·양선·충성·온유·절제 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씨만을 골라서 심어야겠습니다.

② 정성스럽게 심어야 합니다.

농부들이 씨를 심을 때 함부로 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심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굳은 땅을 파서 부드럽게 하고 좋은 거름을 주고 그 위에 정성을 다하여 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씨를 심을 때 정성을 다하여 심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엘 6:6에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하였고 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③ 많이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며(고후 9:6; 잠 11:24-25)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딤후 4:1-2). 또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으며 「너는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여러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전 11:1-2).」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할 것입니다.

□ 씨를 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① 믿어야 합니다.

농부들은 씨를 심은 후에 때가 되면 새싹이 돌아 올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씨를 심어놓은 후에 자주 파보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귀한 씨를 심은 후에 오래 앉아 씨가 돌아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본문 7-9절에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② 참아야 합니다.

「농부들은 씨를 심어놓고 참습니다.」 시간적으로 몇달 아니 몇년이라도 참고 기다리며 길이 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가지 씨를 심어놓고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조금해서 참지 못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약 5:7-8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하였고 본문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들은 고생을 참습니다.」 농부들의 고생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들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또 좋은 씨를 심기 위하여 밤과 낮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생을 참고 견디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령한 씨를 정성껏 심고 온갖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며 땀 흘려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천국일꾼 육성의 작전 지휘부

—주일학교 11개 부의

교사 333명, 학생 2,300명을 위한—

□ 발 전

1953년 교회 설립 이후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교세에 따라 주일학교 또한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61년 6월 당회에서는 이 주일학교 교육의 더욱 알찬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당시에는 유년부와 중·고등부를 위한 교육위원회였지만 1963년도에는 유년·중등·고등·청년 등의 4개 부로 확장되었고, 1966년도에는 유치·초등·장년부가 증설되어 모두 7개부가 되었고, 1968년에 새신자부, 1970년에 대학부, 1974년에 노년부, 1975년에 영아부를 신설하여 현재 교육위원회는 주일학교 11개 부서의 교사 333명, 학생 2,300명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 구 성

교육위원은 각부 부장과 지도교역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당회가 임명하며 총현교회 주일학교 교감직을 겸임하게 된다.

교육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주일학교 11개부에 대한 행정통할·지원·협의 기관의 일을 하여 교회가 지향하는 교육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행정기관이다.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가 조직되었고 각 분과별로 각기 구분된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

□ 분과활동

1. 인사분과

주일학교 각부가 청탁하는 신입교사와 퇴임교사에 대한 적부심사를 하여 당회에 상신하며 또 새로운 교사를 찾는 일을 한다. 앞으로는 이 새 인물 발굴에 많은 힘을 쓸 것이며 충실한 교사를 양성하여 주일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다.

2. 행정분과

주일학교 전체의 일반사무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실의 업무와 주일학교 각부의 서기업무를 돌아본다. 또한 일년에 1~2회씩 학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일학교 전체의 운영을 평가 지도하는 일도 한다. 그러나 현재는 주일학교 각부의 집회 장소와 시간 조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학생은 많고 장소는 좁기 때문이다.

3. 교과분과

교과분과는 주일학교전체의 교과과정을 제시·검토·조정하는 일을 한다. 연말에는 다음 해에 가르칠 교과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이를 주일학교 각부에 시달하고, 연초에는 각부 지도 교역자들로부터 지시된 교과내에서 연중에 가르칠 구체적인 교안을 받아 이를 전체 교육에 반영하여 일관성있게 조절한다.

그리고 이같은 업무외에 현재 교사들에 대한 자질향

상 방안을 연구하여 실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교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교사에 따라 성공 실패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4. 행사분과

각부가 시도하는 행사에 대해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고 또한 이를 조정하며 그 결과를 보고받아 다음 행사의 재료를 삼는다. 11개 부가 행하는 연중행사는 크고 작은 행사를 합해 모두 480여건이나 된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까지 있어 각부의 적극적인 협력없이 행사분과가 이를 잘 관장하기란 힘든 일이다.

5. 공보분과

각부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교육적 가치의 검토와 지도 및 감독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업무의 완수를 위하여 각부는 연중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유인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서를 공보분과에 제출하고 발행후에는 교육위원회와 당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6. 관리분과

관리분과는 비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각부가 소유하고 있는 비품에 대한 관리상태를 돌아보며 신규비품 구매청원을 받아 심사 후에 본회의 가결을 거쳐 당회에 청원하는 일을 한다.

7. 음영분과

주일학교 음영활동을 지원하는데 특히 각부 성가대의 지휘자나 반주자의 결원시에는 충원을 위한 위원을 구성하여 빨리 보충하도록 하며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8. 재정분과

주일학교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부로부터 재정보고를 받고 예산 통제 및 집행 지도업무를 맡고 있다.

□ 회 의

이상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8개 분과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 모든 문제의 상호 유기적인 조정을 위하여 매월 세째주일은 월례 교육위원회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보고·청원·신안건의의 및 긴급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 앞으로의 문제

교육위원회의 각 분과가 제기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각부를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창적인 유대강화 문제와 보다 더 확실한 목표달성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leadership)을 구현하는 문제 등이 있으나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에 그간 교육위원회가 여러 면에서 힘써왔고 또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김 태 현 전도사

<성경학원 교무>

□ 머릿글

우리나라의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1972년 처음으로 농촌에 있는 10개 교회의 26명의 교사가 초청되어 첫 번째 「농어촌교사 초청훈련」을 받은 이래 해마다 열리고 있는 이 특별훈련이 올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해 오던 농어촌교회 지도자훈련을 교역자훈련과 평신도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며 교역자훈련은 5월중에, 평신도(교사)훈련은 7월중에 각각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종전과는 달리 전국을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청하기로 하였는데 1975년도에는 충청남도과 충청북도과 초청 대상지역입니다.

올해의 표어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8-20입니다.

□ 목 표

부흥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교회가 완전한 자립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1. 교역자의 자질향상입니다.

도시와 격리가 심한 농어촌지역에서 수고하는 교역자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세워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강의와 농어촌교회의 부흥을 위한 연구 발표 등을 통하여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담임교역자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처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는 많은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2.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대한 연구입니다.

농어촌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 발전하여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며 연구하여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적절하게 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3. 전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온 교우가 열성있는 전도인이 되어 전도함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고 구원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도훈련은 「평신도 초청훈련」과 「농어촌 전도대 파송」을 통하여 실시하려 합니다.

□ 교육내용

1. 심령부흥회 2. 농어촌교회 발전책 3. 총현교회 목회방침 4. 성경교수 원리 5. 기독교 교육 6. 한국교회의 동향 7. 청지기론 8. 개혁주의와 신복음주의 9. 한국사회와 교회적 사명 10. 교회행정 11. 교회방문 12. 기관방문 13. 발행토의(농어촌교회의 발전책).

□ 총현의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의 농어촌교회가 부흥 발전되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써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관심은 가인문명의 소산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실때에 나는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었습니다. 무관심, 그것은 가인의 것이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한국의 농어촌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문>

현신의 기도

무 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여, 무엇을 위해서든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서든지 나를 쓰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께서 나를 요구하소서. 여기 내 가난한 심령이 있사옵나니. 빈 그릇인 나를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기 내 죄스럽고 번민하는 심령이 있사옵나니. 그것을 뒤엎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

서. 주님 계신 곳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입으로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게 하소서. 내 사랑과 내 힘을, 주님 의지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옵나니. 결코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함과 내 신앙의 신뢰가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옵나니 내 곧 그라”는 말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다. 시카고에서 크게 성공한 그의 신앙부흥운동은 복음주의였고 생키(Ira D. Sankey)와 함께 일하였다. 그는 시카고에서 유명한 무디 성서학원을 개설하였고 그의 고향에서 노드필드 여자 신학교를 창설하였다.

총현권사회 출범하다



<김 봉 계 회장>

◇... 우리교회는 권사만도 99명(시무 84명, 명예 16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다수...
 ◇...의 권사들이 나이가 좀 많고 여자라는 입장 때문인지는 몰라도 같은 제직이...
 ◇...면서도 이제까지 제 2선에 서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않았다.
 ◇... 그러나 5,500여 성도 가운데 그 어느 지대에도 유희지대(遊休地帶)가 생겨...
 ◇...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교회의 뜻이며 권사들의 경우 도리어 권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착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권사회」를 지난 4월 13일 탄생...
 ◇...시키게 되었다.
 ◇...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이 「권사회」의 창립이 비상시 충동원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는 우리교회의 현재 상황으로는 최선의 길이라는 데 의의가 있...
 ◇...을 수 없다고 보며 여기에 그 창립 취지와 앞으로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성경에 비춰보면

“주 앞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전 11:11).”

남자와 여자는 꼭 같은 신자로서 주님을 섬겨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며 남자만 모인 교회나 반대로 여자만 모인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남녀가 다 같이 받아야 할 교훈이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인권이 남자의 인권보다 결코 경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남녀가 할 일이 각각 달라서 그 한계를 정하고 규모와 질서를 정하였을 따름이다(삿4:4-5:31).

교회 일에 있어서 여자들은 최일선에 서는 일보다는 남자들의 뒤에 서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성서적이며 또 자연스럽다(딤후 2:12; 고전 11:3,9).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의 뜻이 남녀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하여야 할 바 적능상의 구분일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자 집사들과 권사들의 교회적 위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발전에 있어 여성도들의 숨은 봉사가 밀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권사직은 교회에서 여성도의 최고직이라고 한다면 권사는 모든 여성도들의 모범자이며 또한 그 임무수행에 있어 솔선하여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 「권사회」를 창립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착안한 것이며 권사들이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사회」가 하는 일이 교회적으로 보면 부분적인 일에 지나지 않지만 교회의 지력을 확보함으로써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한다면 교회에 파급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다.

□ 권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기도반을 편성하여 하루 24시간 기도한다.

모든 일에 있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끝낸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상식이지만 여기서 기도하자는 것은 각자 기도하는 일도 하려니와 좀 규모 있게 매일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반을 조직하는 것이다.

구약에 보면 제단의 불을 끄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끊임 없는 기도의 불을 밝히려는 것이다. 여선지자 안나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을 보여주었다(눅 2:36-38). 성모 마리아는 아들들을 거느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전혀 기도하느라 힘쓰고 후일 그의 아들들이 큰 일꾼이 되었다(행 1:14). 루디아와 여러 부녀들과 함께 강가에 모여 기도함으로써 빌립보교회가 세워졌다고 본다(행 16:13-14). 6·25때 피란길에 나선 어떤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려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권사들과 몇몇 나이 많은 여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큰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교회와 나라와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로 돕고 섬기는 일은 남자들 보다는 역시 여자들이었으며 젊은 이들 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권사회」는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켜 온 교회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키워가자는 것이다.

2. 심방과 전도를 한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성도는 전도의 열심이 솟게 된다. 내집에 찾아온 장사꾼이나, 심방을 가면 믿지 않는 열방식구들에게나, 배스를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생활이 되도록 힘쓰며 훈련을 받는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불연듯 성도의 가정을 심방하고 싶어 가보게 되면 얼마나 잘 왔는지 모를 정도로 감격하였던 지난 날의 많은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권사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우는 자들과 놀린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 힘써 그 영혼들을 돌봐주는 일을 한다. 특히 심방을 할 때에는 교역자들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도 있지만 권사들을 동원하여 지혜롭고 고요하게 심방업무를 수행한다.

권사들이 심방을 가서 해야 할 일들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강론하는 일 보다는 심방한 가정의 사정을 잘 살펴서 “위로해주고” “면회하고” “깨우쳐주는 일”이 중요하다(딤후 2:15; 롬 12:15; 히 10:24-25). 심방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방결과나 심방한 성도들의 사정을 가능한 한 빨리 자세하게 담당 교역

자에게 보고하는 일이다.

심방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치고 신령하게 자란 교회는 없다. 그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심방의 원리가 수 없이 말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양과 같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오신 것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3. 어머니가 되어 교인들을 따뜻하게 영접(안내) 한다.

심방과 전도로 믿음의 식구들을 항상 돌보며 교회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권사들의 머리에서는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출입하는 남녀노소 그 누구에게도 자상한 시선을 보내도록 한다. 예배중에 어린이가 울고 있다든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의 지장이 안되도록 본인들에게는 다시 없는 사람과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어머니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교인 한 사람을 빠르게 영접하는 일이 그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 일을 지켜보고 받게 되는 인상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이 되어 신령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로 등록한 새신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인사를 교환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를 소개, 설명하는 일에 있어 감동적이어야 한다.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당하는 일은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며 각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약 2:1-4)는 교훈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진실로 권사직은 모든 교역자와 더불어 경건의 본이 되지 않고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4.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힘쓴다.

성도들 사이의 화목과 단결을 위하여는 자주 모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주 모인다는 데 폐단이 뒤따라 온다는 것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성도들 사이의 친교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은 성도들이 각각 은혜를 받고 모이고 싶어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우러날 때에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친교 이전에 예비적인 작업이 꼭 필요하며 권사는 성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친교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한다. 별로 대단치 않은 일이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로 의논의 상대가 되어주려고 하면 대화가 쉽게 성립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신임정도를 알지 못하고 말을 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수도 있다. 권사의 신임도는 지식이나 기발한 능력으로 사람의 종교심리를 사로잡는 데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중성한 덕성에 있다. 항상 나만 잘하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친교의 열매를 거둘 수 없거나 성도들 사이에 반목으로 경원해졌을 때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럴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5. 수양관 건립에 힘을 모은다.

눅 8:2-3에 보면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바쳐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 있다. 여성도라고 하여 예배당을 짓는 일이나 교육관 짓는 일에 크게 힘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 된 것이다. 여성도들 가운데 물질을 바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웠다는 일은 국내에서도 종종 듣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을 명령했을 때에 확신과 용기를 결단으로 그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보람된 일이다. 우리교회가 수양관의 필요가 절실했다는 것은 수양관을 지을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암시가 되는 것이다. 적은 수효가 모이는 교회가 가깝 없이 수양관을 지어야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절실한 요구에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구하여야 한다. 권사들의 모임이 이 시대에 이것을 위하여 허락 하셨다면 기어코라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이다. 비록 한 사람의 재력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재력에 많은 회원들의 애절한 기도가 더하여 질 때 더욱 아름다운 수양관이 될 것이다.

<도움글 주신분 백성룡 목사>

◆이런 『권사회』 되기를◆

□ 젊은이들이 미처 못하는 일들을 해결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큰 일을 하고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권사회』를 조직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전도사님들을 도와서 젊은이들이 미처 못하는 일들을 맡아 하였던 좋겠읍니다. 특히 열심히 기도하고 심방하며 제자들을 권면하여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 까지 힘차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자신들은 더 실력 있는 천국일꾼이 되기 위해 항상 배우며 수양관 건립에도 앞서주었으면 합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 총현의 어머니 역할을

그간 각 지회에 흩어져 봉사하던 권사님들이 새로 『권사회』를 조직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권사회』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단합된 봉사활동을 기대해봅니다.

특히 각 구역에서 구역원들을 충실히 돌아보는 인자한 총현의 어머니로서 자주 연상되는군요. <부목사 김재창 목사>

□ 후일 후진들의 존경을 받는 모임

「덕망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잠언 31:29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사회』의 창립총회를 축하합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아니 어쩌면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숙하고 덕망 높은 여성들, 모든 여성들의 길잡이가 되시는 어머님들에게 앞날의 교계를 바라보며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실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모임으로 후일 웃으시며 자식들이 일어나 사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눌일 수 있는 『권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 구명신 집사>

꼭 필요한 "충현"지 감당할 수 없는 주문들

- ☐... 각부의 소식과 활동상황을 알리고 각부 간의 대화의 광장의 구실을 하기 위하여 「충...」
☐...현주교」가 발간된 때는 1967년 3월이었다. 처음 8페이지에서 16페이지로 증면하여...
☐...주교 각부의 이모저모를 알리던 「충현주교」가 1970년 12월 20일, 제 4권 제 8호(통...
☐...권 36호)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1년 6개월여의 공백 후에 1972년 4월 30일 주일...
☐...학교를 포함한 전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충현」지가 계간으로 창간을 보게 되었다. ...
☐... 이해 부족, 재정, 책임자 부재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던 「충현」지가 오늘 만 3돌을...
☐...맞으면서 남아있는 것은 「통권 17호」라는 명맥뿐이다. ...
☐... 지난 해 후반기부터 격월간으로 다시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며 문서선교, 문서활동...
☐...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꾸준히 역설해 온 보람이 있어 금년들어 「월간」으로 승격하여...
☐...많은 교우들의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었다. ...
☐... 그러나 문제점은 이제부터 있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모든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충현」지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하여 편집·제작하는 실무진들이...
☐...무한 애를 쓰고 있다. 이에 「충현」지 3주년을 맞으며 보다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그래서 우리 온 교인이 바라는 「충현」지를 만들고자 설문을 통해 「충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접수순>

편집의 자유속에

자유로운 비평의 보장을

박 윤 식

<대학부>

① 조직적이고 다원적(多元的)인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보아 신문이나 잡지 등의 언론기관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② 별로 없다.

③④⑤ 현재 내가 대하는 충현교회 교인(주로 대학생) 중 관심을 가지고 흥미있게 이 「충현」지를 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들이 무관심하게 된 데에는 이 「충현」지의 내용에도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평소 생각하던 점을 한두 가지 적어 본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떤 단체에 신문이 있다고 할 때 그 신문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 단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진실한 뉴스 보도와 비평을 통해서 그 단체구성원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계몽적인 역할일 것이다.

여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편집의 자유이다. 현재 이 「충현」지는 재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충현교회 당회에 속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구조적인 면에서 그쳐야 하고 이 「충현」지의 편집 방향은 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 전리는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기자들의 자유로운 비평이 보장되어야 함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점이다. 재정적이고 조직적인 예측으로 인해서 「충현」지가 그 내용면에 있어서 기관지로서 그친다면 이 「충현」지가 교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며 충현교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자면, 앞으로 가능한 한, 자주 특집란을 마련하여 선교나 기독교 교육 등의 우리 신앙상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토의와 의견 발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나 충현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충현」지가 충현교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심층보도로

구체적 사건 다뤄야

손 경 수 집사

<중동부 교사>

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형화의 교회 조직이 된 우리 교회로서는 성도간의 교제 및 신앙 향상진전에 문서 미디어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가 거향하는 「천국인문」양성과 「해의선교」활동, 또한 「국내 개척전도」사업 등에 큰 타격을 준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두시간 영의 양식을 갖고는 매마른 심정들에 민족화란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서활동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흥미 보다는 전체적인 지면구성설을 보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없다.

③ 글씨? 월간지인 만큼 그에 따른 편집에 집중하면 좋겠다. 한 마디로 「심층보도」로써 구체적 사건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④ 사이비 내지 이단종파의 내막을 르포기사로 폭로하고, 조직 신앙의 기초를 평신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신앙 단을 다루되 평이하게 취급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보수신앙의 확고한 자세를 정립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으레 교회출석은 어떤 흥분이나 감정 신비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⑤ 실무진들이 연구하며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 다만 바라는 것은 답습적인 편집방향이라든가, 진취성이 없는 사전취급은 오히려 문서활동의 장애요소이다.

절대 필요한 「충현」지

박 기 련 원사

<초동부 부감>

① 절대 필요합니다. 교회 규모가 상당히 큰 우리 교회로서 본 「충현」지는 교우들에게 등대와도 같고 교차로의 신호등과도 같아 많은 교우들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교회의 동향을 알 수 있으며 교회인의 소식을 알 수 있으며 신앙생활에 어느정도의 지침도 되어줍니다. 더욱 좋은 대안이 없는 한 꼭 필요합니다.

② 선교: 선교현지의 생활동 소상히 알게되어 관심이 깊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우스: 교회의 동향을 속시원하게 알게 되어 아주 좋

습니다. 기관소개: 잘 알지 못하던 부분을 밝혀 주어 이해하게 되고 교우들에 권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각부 주일학교도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③ 2 페이지의 「3월의 행사」는 4월달에 나오는데 이왕이면 4월의 행사를 실었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것을 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④ 「충현」지는 교우들의 교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의 하달뿐만 아니라 하의 상달도 될 수 있도록 일반교우들의 뜻과 글도 실릴 수 있도록 했으면 젊은 청소년들이나 교우들의 희망이나 바라는 뜻도 반영이 되어 더욱 좋은 성도의 교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 의견을 묻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⑤ 교우들이 많은 우리교회에는 여러가지로 많은 일들이 봄비는데도 그 때마다 적절하고 명확한 인쇄물이 배부되므로 꼭 유쾌하고 편리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설 문 ◆

① 현재 입장에서 「충현」지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② 지금까지 「충현」지에서 흥미있게 본 부분이 있다면 어느것인지?

③ 현재의 「충현」지에서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은?

④ 앞으로 「충현」지에서 다루주기를 바라는 내용 및 방향은?

⑤ 기타 「충현」지 또는 우리교회 문서 활동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서운동에

과감한 투자를

안 식 렬

<대학부>

① 필요치 않다고 본다. 발간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문서적 성격이 없으며, 광고, 특집, 공과외

에는 없기 때문이다.

② 선교에 관한 것.

③ 먼저 신문이나 편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제작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① 첫 페이지의 전면 컷을 전과같이 반면 컷 이하로 줄이고 마지막 페이지의 기사석과 편집후기란도 줄였으면

② 과거보다 기자의 투고가 교인의 투고보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너무 많은 것 같다.

③ 메시지를 설교식이 아닌 이야기식으로 함으로써 폭넓게 독자의 마음을 두드렸으면

④ 광고란(뉴우스란)을 줄이든지 아니면 면을 늘렸으면

⑤ 교리공부나 구역공과는 별지를 사용함으로 그 지면을 좀더 유익하게 사용을 하였으면

⑥ 장기적인 교육목표를 가지고 편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④ 교인들의 신앙수기와 간증, 수필, 독후감등을 많이 받아 교인의, 교인에 의한, 교인을 위한 「충현」지가 되는 것.

⑤ 충현교회는 한국보수교회를 대표해서 문서운동에 있어서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만 「충현」이 살고 한국교회가 산다고 본다. 미국에 있어서 보수주의운동의 실패요인 가운데 하나가 문서운동의 실패이다. 현재

◇ 특집 II : 「충현」지에 대한 설문 ◇

한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은 손에 쉽게 얻어 지지만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책은 신학생들마저도 얻기 힘들 정도이다. 문서운동은 쉽게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 대학생의 90% 이상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은혜(?)를 받는다. 우리 충현인이 문서운동을 안 한다는 것은 바로 충현인이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키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먼저 교회내적으로 문서를 통해 전도운동과 영적 성장운동을 하는데 과감히 그리고 아낌없이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다

정 금 숙
〈초등부 교사〉

- 11 필요함
- 12 어린이 마음
- 13 어느 규율에 얽매어 끌려가는 듯한 제한성을 느낍니다. 우리의 못다한 대화들, 그리고 알고자 하는 문제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안목을 가지고 다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 14 신앙과 생활에서(교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율리, 도덕 등) —이러한 여러 분야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며 우리가 힘한 세대와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은 어떠한가? —시대적, 역사적인 면에서 고찰하며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의 취할 태도는 무엇이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과 덕을, 이방인에게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진정 아름다운 참 교회의 모습을, 참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내용의 방향설정을 원합니다.
- 15 한국 보수교회의 대표인 충현교회의 일면인 「충현」지와 기타 우리 교회의 문서활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타교회에서 주시하고 있음을 충현 식구는 모두가 깨달아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겠습니다.

유급 전임담당자를 두어야

이 승 근 전도사
〈유년부 지도〉

- 11 꼭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충현」지는 교회뉴스 정도 소개에 중점을 둘 정도이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는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페이지수를 늘려서라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페이지를 좀더 할애해 주었으면 한다.
- 12 충현만평
- 13 지식의 전달이나 소개보다 간증담 등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기록하기 원하며 우리교회라는 태두리를 벗어나서 시야를 넓게 받아 주었으면
- 14 ① 성경공부, 간증문, 교단소식 등
② 가능한한 성경학원과 지도자양성부의 교과내용을 실어 주었으면
- 15 기왕 교회기관지로 할바에야 유급 전임담당자를 두고 인쇄기를 도입하고 「충현」지의 페이지수도 늘여서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해서 질적, 수적, 영적인 수준을 높여 주었으면.

불투명한 발행목적

오 태 용
〈청년부 회원〉

- 11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한국에서 우리 충현 교회의 지도적 위치 때문이다.
- 12 무거운 글이 별로 없었다. 구태여 말하라면 12호에서의 복음화 전략 연구, 15호에서의 WCC적 에큐메니칼운동은 무엇인가와 구약에 나타난 부활사상을 들 수 있겠다.
- 13 기사의 잡다화로 인하여 「충현」지의 발행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가지수 많은 반찬은 먹을 것이 없는 법.
- 14 「천국 일꾼을 키우자」에 「충현」지도 참여해서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추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 우리는 「말씀」의 보수를 표방하는거지 보수 방법에 있어서 보수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수세에 물리는 보수에서 적극적인 보수에로 이 인쇄매체를 신문 활용해 주기 바란다. 왜 최근의 신학적 및 교계의 동향에 무감각한가.
- 15 초점(Focus) 있는 「충현」지가 되길 바란다. 현재 보수진영의 문서활동은 미미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따라서 개교회만의 기관지가 아니라 보수진영 문서활동의 일익도 담당하는 것이 「충현」지의 사명이 아닌가 한다.

자연과학부문의 내용 수록을

유 병 세 집사
〈남전도회 회원〉

- 11 한마디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교회내 소식을 알림으로 큰 교회의 단점인 코이노니아에 교량제 역할을 하며, 둘째 일상생활에 쫓겨서 성경공부 어느 반에도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경(교리) 지식을 높여주고 세계 복음전도와 충현교회 부흥에 기여함.
- 12 단기수련회 때 강의내용소개, 교리공부, 구역공과, 설교란 뉴스 순서입니다.
- 13 국문으로만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읽기에 힘이 들고 특히 노인과 부인들에게 그러하니 좀 더 읽기 쉽게 신문식 편집으로 즉 교리나 설교를 제외하고는 제목을 크게 써서 편집은 일반 신문식으로 하고 「프로필」난 등과 같이 다양한 편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14 숨은 미담이나 선행을 찾아 알려주는 내용, 간증문과 하나님의 자연계시인 자연과학의 진리 내용, 즉 「천문학」, 「의학」, 「고고학」 등을 취급하여 보다 폭 넓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15 각 주일학교 문화부책임자, 남전도회, 해외복음 선교회 섬의부책임자, 각기관 대변인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이 「충현」지에 책임을 맡으므로 취재원을 넓혀 자세하고 빠른 취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5 과 / 제 5 계명
 □ 성 경 / 출 20 : 12
 □ 찬 송 / 새 281(합 257)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제 1 계명에서 제 4 계명까지)을 공부하였다. 이제 제 5 계명부터는 사람에 관한 계명 즉 대인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공부하려 한다.

제 5 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째 부분은 계명의 내용이며「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번째 부분은 제 5 계명을 지키야 할 이유와 그 결과「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이다. 그런데 이 제 5 계명은 대인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적 계명이 된다. 이제 그러면 제 5 계명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

1. 제 5 계명의 내용

여기서 부모라는 말은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를 말한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은 유교에서도 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점은 유교에서는 다만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효도를 말하고 기독교의 효도는 신본주의적인 입장으로서 육신의 근본이 되는 부모 공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교육을 담당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

다음은 영적부모인 목사님들에 대한 공경이다. 그들은 복음으로써 성도들을 낳은 영적 부모들이다(고전 4:15). 그런데 영적 부모들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말 2:7)들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고후 5:20)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눈을 뜨게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행 26:18)」하는 직책을 가졌으므로 공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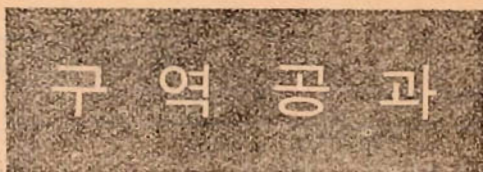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귀히 여기는 것이다(살전 5:12-13). 두번째는 필요한 생활비를 공급하고 합부로 송사하지 않는 것이다(딤후 5:18-19). 세번째는 그들의 영적교훈에 순종하는 것이다.

2.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와 그 결과: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베푸는(육체적 또는 영적) 사랑과 애정 때문에 공경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골 3:20). 그러면 부모 공경의 결과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축복과 장수이다.

- 제 6 과 / 제 6 계명
 □ 성 경 / 출 20 : 13
 □ 찬 송 / 새 309(합 265)

「살인하지 말지니라」하는 제 6 계명은 첫째로 살인이 금지된 범죄임을 가르쳐 주며 두번째로는 성도들의 의



◇ 4월 공과 ◇

무의 하나는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1.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

살인에는 육체를 손상시키는 것과 이름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있다. 흔히 살인은 분노(창 49:6)와 질투(창 37:20, 요셉과 가인의 경우) 그리고 미움(겔 35:5, 우리말 번역에는 「한(恨)」이라고 되어 있음)에서 나온다.

살인의 방법으로는 12가지가 있는데 ① 손으로(삼하 20:10) ② 마음으로(요일 3:15) ③ 입으로(요 18:30,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하여 죽임) ④ 펜으로(삼하 11:15) ⑤ 공모함으로(왕상 21:9-10) ⑥ 복술 및 무당으로(신 18:10) ⑦ 타인을 통하여(삼상 18:17) ⑧ 다몬이의 죽음에 동의함으로(행 22:20) ⑨ 권력을 가진 자가 무죄한 자의 죽음을 저지하지 않음으로(요 19:6) ⑩ 무자비함으로(신 24:6) ⑪ 중죄인(重罪人)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 ⑫ 남의 잔에 독을 넣음으로 등등의 방법에 의한 살인죄의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2.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즉 자살죄).

살인이란 남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것을 흔히 자살이라고 부른다. 자살에는 간접자살과 직접자살이 있다. 간접자살로는 ① 일부로 위험에 뛰어드는 경우, ② 병이 발생했을 때 고의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 ③ 술에 취한 세상 근심(고후 7:10), ④ 지나친 근심 또는 과식등이 있다. 직접자살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도 최근 시야에서 문제되고 있는 안락사(安樂死)같은 것은 인간의 자비심을 위장한 것으로 경계하여야 한다.

3. 제 6 계명에 암시된 적극적 의무

(가) 타인에 대하여 :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힘써야 한다.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뿐 아니라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품을 나누어 가지며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구호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다.

(나) 자신에 대하여 :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보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 이 구역공과는 매월 계속하여 실리게 됩니다.

해외선교—한국교회의 사명



◁ 잠재 가능성의

구체적 현실화가 급선무 ▷

이 종 영 목 사

- ◇……누군가 한국을 동양 기독교의 예루살렘이요, 20세기 세계 기독교의 등대라 했다. 혹자는……◇
- ◇……우리 한국교회가 기필코 80년대 동양선교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서구……◇
- ◇……선교가 몰락하는 이 때에 대선교의 역사적 사명을 이어받는 실력있는 교회가 되자고 한다.……◇
- ◇……이와 같이 해외선교 사명에 대해 내외적으로 요청을 받고 있는 현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 ◇……현황과 실태 및 그 잠재력을 평신도들을 위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

한국교회에 대하여 세계의 선교적 사명을 서슴치 않고 주장하는 배후에는 시대적 요청과 아울러 한국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세계선교의 대열에 앞장 서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그렇다. 선교는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인가 반드시 하여야 할 지상교회의 최대의 과제이다. 그런데 그 동안 선교의 주역을 맡아왔던 서구의 기독교국가들은 식민지확장과 교과확장이라는 순수치 못한 이중적 동기와 자체내의 신학적 좌경으로 선교지와 아울러 선교적 열정과 순수한 복음을 동시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들이 순수한 복음에로의 개혁 없이 선교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저들은 자신들의 안망이 무신론의 피선교지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의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순수한 복음과 함께 자동적 잠재력을 소유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바는 오직 한국교회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계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대와 전망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웁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닌 잠재력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한국교회의 최대의 잠재력은 순수한 복음과 함께 말씀과 성령개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이다.

비록 교회내에 색다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순수한 복음과 신앙은 한국교회내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전투적 용기로 총일할 수 많은 인재들이다. 지금 선교의 꿈을 안고 일어나는 젊은이들은 과거 극심한 핍박과 경제난과 고통중에서 맨주먹을 붙곤 쥐고 일어나 무릎이 굽도록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교회를 일으켰던 훌륭한 선배들의 손에 키움받은 자들이다. 그

러므로 그 전투적 기질과 투지와 용기를 그대로 물려받은 인재들인 것이다. 그러기에 선교현장에 투입된 백병전의 용사로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좋은 인물들인 것이다.

셋째로 한국교회가 지닌 엄청난 재력이다. 문화공보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등록된 89개 교회 법인체의 재산은 천년을 내려온 불교재산 70억보다 훨씬 많은 122억 9천 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상 한국교회의 재산을 출납아도 1,000억 이상에 달하리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연간 예산은 2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중 5%를 세계선교에 투자한다면 무려 10억원(200만원)을 선교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 외에도 한국교회에는 수십명의 국가급 재벌과 수천명의 지방 재벌이 있다. 이 잠재력은 한번도 효과적으로 동원되어 본 일이 없었던 순수 자원이다.

이러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선교상황과 그 실태는 어떠한가?

첫째로 선교신학에 있어 아직도 한국교회는 태아기에 있다. 오늘의 세계 신학계가 선교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견해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개혁주의 선교신학은 수립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 동안 선교신학에 있어 방황감각을 상실한 채 전혀 지척을 분간 못하는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실례를 들자면 지난 수년동안 총회신학교에서는 선교학을 제대로 강의한 교수조차 없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개혁주의 신학 사상에 입각한 바른 선교신학의 정립이다. 이 문제에 있어 우리는 이미 선교에 앞장섰던 선진국과 손을 잡고 그동안 저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폭넓은 자세를 갖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력구구식 선교에서 과감이 탈피하여 연구하며 진행하는 전략적 선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아시아에 편재한 전 선교인 수의 약 12%인 350만 성도를 자랑하나 그 동안 파견한 선교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현 아시아 전 지역에는 12,200여명의 선교사가 활동

하고 있으나 한국선교사는 저들의 부인을 포함하여 50여명 미만으로 이것은 부끄럽게도 아시아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총수의 0.4%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자립하여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목회자는 무려 200여명에 달한다. 그 외에도 U.B.F.와 같은 학생 단체를 통하여 의사·간호원·약사 등으로 해외에 나가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평신도도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선교는 아직도 그 수많은 인재와 잠재 가능성에 비해 약세사리 선교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경제적 잠재 가능성이 전혀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한국교회의 총선교비가 1억원도 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개발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발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묻어두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역사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개발되지 못한채 사장되었던 아픈 경우를 말해준다. 고대 북아프리카교회가 그러했고, 오늘의 서구교회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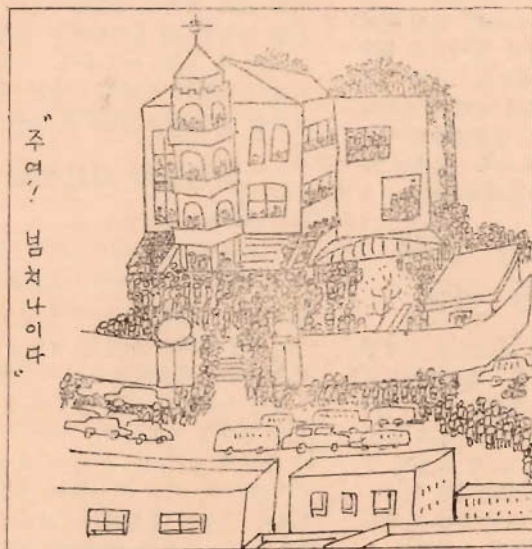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마음 설레이지 말고 침착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하여 선교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어 한국교회가 80년대 세계선교의 실질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이 아닐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8 하>

<충 현 만 평>



■ 컬럼 · 컬럼 · 컬럼 ■

심는 일과 키우는 일

정 은 표

4월은 나무심기에 가장 알맞은 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만 되면 수많은 나무를 새로이 심는다.

해마다 모두가 이토록 나무를 열심히 심는 때는 까닭이 있다. 지금은 어리지만 큰 나무로 자라게 될 먼 훗날 그 나무에서 열매와 향기, 아니면 유익된 그 무엇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기대는 오늘날 부강한 나라라고 하면 예외 없이 산림자원이 풍부한것을 보아도 조금도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나무를 키우는 일에 비하면 나무를 심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비교적 적지 않을만큼 적게 든다. 그런 이유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몇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몇년 후에는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남아 있지 않고 잡초만 더욱 무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부질없이 키우지도 못한 나무를 해마다 몇천 몇만 그루씩 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 몇 그루의 나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성들여 키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지혜로운 태도일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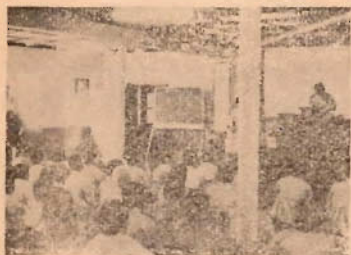
나무를 심고 키우는 일처럼 사람을 얻고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자」는 말이 10여년 전부터 수없이 오가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키운다」는 의미를 단순히 「심는다」는 의미와같이 혼동하여 받아드리고 있는 것 같다. 「키우는 일」은 「심는 일」과 행위적으로 볼 때 결코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없다고 본다. 「심는 일」은 심는 데서 끝나 버릴 수 있는 일이지만 「키우는 일」은 「심는 일」이 먼저 필수적으로 수반된 후에 심은 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돌보고 가꾸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심는 일」—모아들이는 일」과 사람을 「키우는 일」—가르쳐 행하게 하는 일」과의 구분을 분명히 지어 각각 구분하여 생각하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분명한 길이라고 본다.

자신이 키울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의 범위도 채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상승하는 그래프만을 보고 만족하고 있는 한 「심는 일」에만 만족하고 「키우는 일」에 어두워 조그만 기대도 거둘 수 없는 부질없는 식목처럼 진정 우리 가운데서 복음으로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시킬 거목(巨木)들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권 사회 창립 총회

—지난 4월 13일, 심방과 성도의 교제에 중심역할 기대—



<총회 광경>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총현교회 권사회” 창립총회가 지난 4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본관 1층 유년부실에서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드디어 개최되었다.

총99명(사무권사 84명, 명예권사 16명)의 권사 가운데 69명이 참석한 이날의 총회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라/행 16:6-10”는 제목으로 백성통 목사의 설교가 있는 후 준비위원장 안윤진 권사의 개회 선언으로 역사적인 막을 열었다. 회순에 따라 회칙통과가 있었고 이어서 가진 임원선거에서 김봉제 권사가 1차 투표에서 66표를 얻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교회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협동봉사와 4개 구역에 각 구역별로 부회장 1명씩을 두고 봉사·친교·설교 등의 3개 부(部)를 두어 앞으로 구역을 통한 조직적인 기도운동·심방활동·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2/3가 넘는 전체 여성도들의 중간지도자로서 준교역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함으로써 앞으로 이 “권사회”를 통한 한층 더 심화된 구역운동과 사람에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각종 기념행사 통합 실시

이제까지 당회 산하 각지회가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각종 기념행사를 지양하고 이를 통합된 범교회적인 기념행사로 할 것을 당회는 검토하고 있다.

연 1회로 하여 총현의 모든 성도가 한날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여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성가경연대회와 성경암송대회 등을 행사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이를 금년부터 실행하기 위하여 당회는 한명옥·조현명·최석주·신계택 장로 및 홍종만 목사, 재정위원장, 당회서기 등 7명을 추진위원으로 임명하고 실제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고 한다.

□ 5천만원 목표

오늘(20일) 성전건축을 위한 현금 액 작정이 있다. 날로 심각해 가 기만 하는 장소의 협소물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와 기도하는 중에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번 성전건축 현금의 목표액은 5천만원이다.

특히 이 목표액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작성된 현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현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단 한사람이라도 성전 건축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현금 작정의 대열에서 빠진다면, 이는 믿는 자로서 진정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 당회장 선교지 돌아보러 출국

우리교회 당회장이며 총회 선교부장인 김창인 목사는 총회의 계획에 따라 동남아 선교지의 실정을 돌아보기 위해 오는 21일 출국할 예정이다.

태국·인도네시아·일본 등이 이번 돌아보게 될 곳인데 약 6주간의 여행일정에는 태국과 일본에서의 부흥집회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선교를 위한 현지 사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총현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이 항상 보호하시며 성령님께서 이르는 곳마다 강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여야겠다.

□ 수양관 위해 20만원 현금

지난 3월 26일 신병으로 별세한 김춘선 권사(김광철 장로 부인)의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의 뜻에 따라 수양관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20만원을 현금하였다. 또한 김봉제 권사도 같은 뜻으로 15만원을 현금하였는데, 우리교회는 수양관 건축문제도 또한 오래전부터 소원하여 오

던 것으로써 해마다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 장소를 빌리는데 많은 노력과 재정적인 자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종영 목사 개척교회로

그간 선교사 후보로 우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오던 이종영 목사가 건강상의 사정으로 해외파송이 어렵게 됨으로써 지난 4월 13일 선교사 후보의 임무를 해체시키고 시내 도봉구 창동 방면에 개척교회를 설립하여 시무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우리교회에서는 예배장소의 준비 등 교회 개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가능한 한 실시하기로 하겠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와 격려가 현재의 이종영 목사에게는 또한 필요하리라고 본다.

□ 남전도회 의료전도 실시

지난 4월 19일 남전도회는 한명옥 회장을 비롯한 의사·간호원 및 남전도회 임원들 5명이 남전도회 지교회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장락교회에서 의료전도를 실시하였다.

담당 의사로는 회원인 유병세 집사가 헌신을 하였는데,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된 이번 의료전도에서도 또한 더할 수 없는 따뜻한 성도의 사랑이 전달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기회가 되었다.

□ 대학부 특별교육 실시 키로

각 대학이 휴강사태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때를 활용하는 뜻에서 대학부는 오는 21일(월)부터 30일 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영어성경연구와 특강등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번 특별교육에 대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고 한다.

□ 작은 음악회의 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게 되는 「작은 음악회의 밤」이 이효은 집사의 지휘와 김희영 선생의 반주로 오는 5월 17일(토) 오후에 본당에서 열린다고 한다.

중등부 성가대의 질적 향상과 고전성가와 현대 성가 모음으로 성도들의 성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열리기 시작한 이 음악회는 기타·피아노·하모니카 등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악기가 동원되리라고 하는데 중등부는 앞으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중등부 회원을 모아 노방전도를 위한 악대를 조직하리라고 하는데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노방전도악대」의 시발이 될지도 모른다고 보아 크게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헌혈자 모두 62명

우리 교회가 해마다 실시하여 온 헌혈이 올해도 대한 적십자사 혈액원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다. 지난 4월 13일 아침부터 유치부실에서 실시된 이번 헌혈에는 모두 62명의 성도가 참가하였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반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는 연속되는 집회로 인해 헌혈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함에 기인하였다고 한다. 원래 목표는 200명이었었다.

□ 특별 심방대 조직 —초등부

4월 20일부터 초등부는 장기 결석자를 위한 특별 심방대를 조직운영키로 했다. 교사들로 구성된 이 특별 심방대는 한 과에서 4명씩의

교사들로 2개조로 나누어 주일 오후에 장기결석자를 심방한다.

□ 부활절 그리기대회

유치부에서는 지난 3월 30일(주일) 유치부실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슬라이드를 관람한후 부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발표회를 가졌다. 그림과 발표를 통하여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성경 암송대회—마태 5~7장

유년부는 4월 20일 성경 암송대회를 가진다. 계획상의 성경퀴즈대회를 유년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경암송대회로 바꾸어 실시하게 된다. 마태 복음 5, 6, 7장을 내용으로 반별 릴레이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 충현 이름 빛낸 중· 고등부

지난 3월 29일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로 열린 성경퀴즈대회에 출전한 우리교회의 고등부팀은 단체 1등을 하여 충현의 이름을 빛나게 하였다.

또한 중등부에서도 지난 4월 12일 열린 성가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장형윤양이 성가 부문에서 1등을 하였고, 합창에 2등, 중창에 3등을 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자랑감이 되었다.

□ 계속되는 목요집회

영아교육의 일환으로 갖게 된 영아부의 어머니학교「목요집회」는 계속되는 호평속에 매주 50여명의 어머니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제의 권위있는 강사들을 모시고 있는 「목요집회」의 4월 강사로 성심병원장 노명덕박사와 전 YMC A유치원 교사 신인순 선생이 담당하신다.

□ 알 림 □

●가정 교사를 구하는 성도에게
대학부에서는 가정 교사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가정 교사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학과목 뿐만이 아니라 신앙교육도 아울러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있다고 한다.

●지난 2월호까지 「충현」에 연재되던 성경통신강좌(교리 문답편)은 지난 3월호부터 성경학원으로 환원하여 성경학원에서 매월 작은 책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토막 소식 □□□

◇ 성경학원에서는 지도자양성부 제 8기생 모집중.

◇ 교육연구위원회의 4월모임이 오는 27일에 있는데 연구 발표자는 조선근 집사(제목—우리교회 문서활동의 실태).

◇ 남전도회는 4월 20일 백성통목사를 모시고 지교회인 시내 신림동의 장락교회에서 성찬예식.

◇ 남전도회는 새로운 개척교회 골색중.

◇ 중등부는 회원 800명 목표 달성을 위해 비상 체제(?)로 조직을 강화, 특수훈련을 받은 전도특공대도 투입 예정.

◇ 고등부는 4월 20일 1학기시험.

◇ 대학부는 4월 13일 「충현 대학」발행 1주년 특집호를 발행 축하

◇ 대학부는 4월 19일 반별성가경연.

◇ 청년 부는 지난 4월 4일 삼각산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특별 필자기도회.

◇ 남녀교역자님들 지난 4월 14일 용인에 있는 민속촌 견학.

◇ 제일성가대는 오는 5월 5일 금곡능에서 야외예배 예정.

◇ 여성성가대는 지난 4월 17일 소양강에서 야외예배.

◇ 유·초등부는 4월 20일 부터 교회미화작업에 착수.

◇ 초등부는 지난 3월 30일 자체 사무검열 실시.

—◇ 바로 잡습니다 ◇—

15호(3월 호)에서 틀린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7p 3단 35행의 「9」를 「19」로, 8p 1단 23행에 「이」를 「많은」로, 29행에 Young 다음에 「:」를, the를 The로, prophecy를 Prophecy로, 30행에 「때로서」를 「비로서」로 34행에 「32」를 「35」로.

기자석

◇…뽕뽕 열었던 겨울이 어제인양 내리 췌는 태양이 고맙긴커녕 짜증스러우니 웬일일까?

◇…다같이 두손 모우고 기도합시다! 하는 교사의 외침과 멀거니 뜨고 보는 어린이들, 무언가 울부짖고 싶은 마음은 웬일일까?

◇…침체되었던 청년부도 잠에서 깨어난양 성령의 불길이 벌떡 세차고 엄청나게 무시우리만큼 일어났다. 반갑고 감사할 일. 앞으로의 전망이 무척 기대된다. 눈뜨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없는한……

〈복〉

◇…어딘지 모르게 요란하고 어수선한 주위의 소음속에 눈을 번쩍인다. 각 부서에서 몸치장하는 소리가 우리의 이목을 끌기도 끈다. 당연한 철이 바깥에 따라 행하는 연례행사인데도……. 우리의 신경에민일까 아니면 과민일까?

◇…사회와 또는 죄와 단절된 그리고 동화될 수 없는 특수한 감정 때문인가? 그리고 우리의 경건하고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작은 일에도 힘써 기도하는 마음가짐 등이 좋은 일인줄 누구나가 알면서도 또한 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외적 치장도 중요하겠지만 각자의 중심을 단장하는 내적인 미도 중요한 것이다. 〈재〉

◇…연하게 물들어가는 봄빛의 훈훈함을 마시던

서 또 한 번 「봄이로구나」 감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면서도 언제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유난히 꽃봉오리가 희고 탐스럽게 때문입니다.

◇…좀더 겸허한 마음이되어 「충현」지를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충현의 꽃봉오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설픈 미소로 부족함을 대신하겠습니다. 〈신입기자—정〉

◇…요사이 주일학교 학생 수가 부쩍 늘어 고맙고 황송하기까지 한데 비좁은 교실문제야 당장 뜻대로 안된다 해도 교사가 모자라 절필때는 안타까운 실정은 왜 해결될 수 없는지, 620 여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손꼽아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나의 계산이 틀렸나?

◇…공산진영에서 탈출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를 위해 죽기는 쉬워도 예수를 위해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성전건축 헌금 작정이 있는데 혹시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 “내 재산을 몽땅 드리라고 한다면 몰라도 내 재산의 십분의 일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시……”라고 할 사람은 없었지?

◇…모르기는 몰라도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수입의 십일조가 아니라 재산의 십일조를 성전 건축을 위해 단 한번만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전을 열게도 지을테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가장 결단력 있고 용기있는 믿음의 세대였다고 두고두고 본을 삼을텐데. 〈표〉

편집하고 나서

* 요한 기분이 된다. 웃지도 울지도 못 할, 앉지도 서지도 못할. 물론 칭찬을 받고자 한 일은 아니었으니 어찌 할 수 없는 內出血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사실은 언제나 사실로 나타나는 법이다. 따끔따끔한 지적이 립지 않음은 항상 생각하고 문제로 생각되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움은 웬일인지? 마치 몰래 숨어서 달콤한 죄를 범하다 들킨 입장이랄까?

* 「충현」지의 필요성과 교회에서 문서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오늘날이 「충현」지 하나 끌고 나가기에 벅차고 일할 일꾼이 부족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물론 탄 분야의 봉사와는 달리 개인의 적성과 소질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 시정해야 할 많은 점들을 듣고 또한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시정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충현」지로서는 도저히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임은 모두가 이야기한 바와 같다.

부끄럽지만 현재 「충현」지의 입장은 「나온다는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편집, 제작과정에서 개인에게 큰 타격을 줄 정도로 엄청난 노력과 시간, 정신,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 되기 전에는 이 이상의 진전이 힘들 것이며 실무진이 바뀌면 과연 어찌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까지도 안고 있다.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의 「충현」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 하겠다.

* 「충현」지를 아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어디서나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야 하고 그 제기된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 발전된 새로운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형〉

* 1975년 4월 13일. 「권사회」 탄생! 우리 모두 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권사회」라는 또 하나의 조직을 큰 교회의 비만증으로 풀이할까 매우 염려된다. 도리어 큰 교회가 빠짐기 쉬운 성도의 연약한 화적 연결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로 풀이하여야 하리라. 〈표〉

〈표지 설명〉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막 4:3-9),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더러는 얇은 돌 밭에 떨어지매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밭은 세상이요(마 13:38).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눅 8:11).